

독일 바이마르공화국 시기의 평화운동과 평화주의*

- ‘조직적 평화주의’에서 ‘급진적 평화주의’로

송충기**

국문요약

본 논문은 독일 바이마르공화국 시기에 평화운동이 내부적으로 분열함으로써 파시즘의 등장에 맞서 제대로의 역할을 하지 못한 이유를 당시 가장 큰 조직이었던 <독일평화협회>의 활동을 분석하여 찾고자 한다. 제1차 세계대전 직후 평화운동은 고조되었고, <독일평화협회>도 조직적으로 발전했다. 특히 전쟁 이전에 명망가 중심의 협회가 이제는 대중에 기반한 활동적인 조직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새로운 조직적 변화를 기반으로 ‘급진적 평화주의’ 노선이 부상했다. 하지만 베르사유 조약과 프로이센 군국주의, 징집거부 등의 문제로 내부적으로 온건파인 ‘조직적 평화주의’와 ‘급진적 평화주의’가 대립했고 결국 공화국 말기 분열하고

* 여기에서 말하는 평화운동과 평화주의는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하지만, 사실 독일어에서 평화라는 단어는 개념사적으로 서로 다른 두 가지 의미에서 출발했다. 하나는 “침해받지 않은 권리와 우정과 상호 애정의 상태”라는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폭력행위가 중지된 상태”라는 뜻이다(빌헬름 얀센 2010, 18). 어원상으로 볼 때 전자는 고대 독일어에서 나온 것(Frieden)이고, 후자는 라틴어(pax)에서 나왔다. 두 용어의 의미가 근대에 와서 똑같이 사용되었다고는 하지만, 어원의 차이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예컨대, 평화주의(Pazifismus)와 평화운동(Friedensbewegung)에서 사용되는 ‘평화’라는 용어가 다른 의미를 띠고 강조하는 것도 달랐다. 1920년대 중반 한 평화운동가는 양자의 차이를 이렇게 밝혔다. “평화주의는 무엇보다도 폭력적인 방해를 저지해서 주어진 상황을 **외부로부터** 평화롭게 만들어 확보하는 것을 원하고, 이에 반해 평화운동은 무엇보다도 모든 이의 동등한 권리를 전제로 하여 인간의 발전과 영향에서 **내적인** 만족을 원한다.”(강조는 원문 저자). Ludwig Oppenheimer, “Pazifismus und Friedensbewegung”, *Frankfurter Zeitung* vom 17. Sep. 1928. BArch R507/1105.

** 공주대학교 사학과 교수, ms2991@kongju.ac.kr

말았다. 이렇게 분열된 <독일평화협회>는 정치적으로 더욱 고립되었고 결국 파시즘의 대두에 직면하여 별다른 저항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오랫동안 침체기를 맞이했다.

주제어: 독일평화협회, 평화운동, 평화주의, 바이마르공화국, 징집거부자, ‘조직적 평화주의’, ‘급진적 평화주의’

I. 서론

“우리 내각은 앞으로 <독일평화협회>(Deutsche Friedensgesellschaft)와 <전쟁 반대자협회>(Bund der Kriegsgegner)의 주장에 무엇인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내각이 이 문제를 너무나 비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모든 직업단체와 사상단체가 그렇듯이, 평화주의자도 노선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평화주의자 조직은 몇 년 전부터 지도부를 둘러싼 치열한 투쟁을 벌이고 있는데, 올바르게 확신에 찬 평화주의자조차 그 조직의 많은 것이 혼란에 휩싸여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몇몇 평화주의자의 의도가 불순하여 평화주의적 사고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생각한다. ……이들 내부의 필연적인 정화과정을 외부에서 어설픈 개입하여 방해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의도가 아니다.”¹⁾

1930년 7월 바이마르공화국 국방부가 작성한 이 문건은 당시 평화운동이 어떠한 상황에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우선 평화운동, 특히 <독일평화협회>는 이미 한 해 전에 실제로 분열되기 시작했다. 온건한 (위의 문건에 따르면 ‘올바른’) 평화주의자와 (역시 위의 문건에 따르면, ‘불순한’) 급진적인 파벌 사이의 갈등이 이미 공화국 초기부터 있었지만, 갈등이 폭발하여 조직적 분열에 이르게 된 때는 1929년이였다. 나치의 등장을 앞두고 이들이 내린 결정은 문자 그대로 외부의 적을 앞두고 단결해야 하는 ‘성내(城內) 평화’가 아닌 ‘성내 전쟁’이였다. 급진주의자가 지도부를 장악하면서 많은 온건

1) Die Aufsatz des Reichswehrministerium vom 17. 7. 30. betreffend wehrfeindlicher Tätigkeit pazifistischer Kreise: Ein notwendiger Reinigungsprozess. Kein störender Eingriff des Reichskabinetts. BArch R 43-1/513.

한 평화주의자가 협회를 탈퇴하여 회원 수가 매우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탈퇴한 평화주의자가 따로 독자적인 조직을 구성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하필 파시즘의 준동이 심상치 않았던 바로 그 시기에 <독일평화협회>의 분열이 일어남으로써, 이 운동의 ‘실패’가 갖는 역사적 의미는 적지 않다.

그런데 위의 정부 문건이 주장하는 대로, “외부에서 어설프게 관여할” 필요조차 없었던 이들의 분열은 왜 일어났던가? 이들의 ‘자중지란’은 “다른 직업단체나 사상단체처럼” 온건한 사람과 급진적인 사람 사이의 차이, 곧 일종의 노선 ‘차이’에서 비롯되었던 것일까? 사회적 현안에 대한 정치적 합의가 무력했던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면, 이러한 노선 차이는 당연한 결과로 보이기도 한다. 사실 <독일평화협회>는 원래 평화운동 내에서 급진적인 세력이 아니었다. 그런데 바이마르공화국 후반기에 이 조직은 점차 급진적인 경향을 띠게 되면서 분열이 가시화되었는데, 여기에는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에는 평화운동은 크게 고양되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하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정치적 논란에 휩쓸리면서, 평화운동의 지지 세력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었다. 이러한 분열 양상은 평화운동 자체가 갖고 있었던 한계이었던 것인지, 혹은 바이마르 공화국 정부의 책략 등 외부의 문제였는지도 궁금하다.

이 논문은 바이마르공화국 시기의 평화운동을 <독일평화협회>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이들이 왜 바이마르공화국 말기에 분열의 양상을 보였는지를 추적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특히 전쟁 후 고양된 반전운동, 전쟁 패배에 따른 민족주의적 경향, 그리고 평화운동에 새로 등장한 문화를 살펴보면서 이 분열의 원인을 설명해보고자 한다. 이에 관한 기존의 역사적 연구가 없지는 않지만, 주로 <독일평화협회> 내부에 시선을 집중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능한 외부의 시선, 곧 정부의 정책이나 여론의 동향이 이러한 ‘내부 분열’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를 고찰하면서, 그 원인을 해명해보고자 한다. 다행히 최근 당시 정부의 문서가 인터넷에 많이 공개되면서 최소한의 사료 작업이 가능하게 되면서, 이러한 분석의 틀을 부족하나마 갖추 수 있게 되었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서론에 이어 II장에서는 바이마르공화국 초기에 평화운동이 거세지면서 <독일평화협회> 등 평화운동의 조직 자체가 제1차 세계대전 이전과 크게 달라졌음을 살필 것이다. 특히 양적으로만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평화운동이 변화했음을 강조해두고자 한다. 이어 III장에서

는 바이마르공화국 시기의 평화운동에 노동자가 대거 참여함으로써 이전과 다른 문화를 보였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대중운동에 기반함으로써 명망가 중심의 평화운동은 이때 종말을 고했다. 하지만 새로 등장한 대중의 참여는 평화운동의 흐름에는 오히려 양날의 칼로 작용했다. 그것을 IV장에서 바이마르공화국 말기의 분열 과정을 되짚어 봄으로써 확인할 것이다.

II. 전후 평화운동 조직의 변화: 대중운동의 등장

1892년 조직된 <독일평화협회>는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직전 회원 수가 1만 명 정도였다. 하지만 전쟁이 진행되면서 회원 수는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전쟁이 끝난 직후에는 절반 정도 떨어졌다. 하지만 종전 후 다시 반전운동이 고양되면서 예전의 회원 수를 단숨에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1923년에는 오히려 그 수가 거의 두 배로 늘었고 1926년에는 다시 이보다 두 배로 늘어, 회원 수가 3만 명에 육박했으며, 지역단체 수도 300여 개를 헤아릴 정도가 되었다(Quidde 1926).²⁾ 이로써 독일의 평화운동은 “최소한 조직 발전의 측면에서 처음으로 대중운동의 차원에 들어섰다”(Holl 1978, 780). 그뿐만 아니라 이 운동은 질적으로도 눈에 띄는 변화를 보였는데, 무엇보다도 이 협회가 몇몇 명망가 중심의 단체에서 벗어나 예비역 장성과 유명한 문인이 대거 가입하여 다양한 회원을 보유하게 되었고, 정치무대에서도 실질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특히 1927년과 1935년에 각각 노벨평화상을 받은 루트비히 크비데(Ludwig Quidde)와 칼 폰 오시에츠키(Carl von Ossietzky)도 여기에 참여했다. <독일평화협회>의 기관지인 『평화의 파수꾼』(*Die Friedens-*

2) <표 1> 1920년대 독일평화협회의 회원 수

년도	1914	1919	1920	1921	1922	1923	1924	1925	1926
지역협회 수	98	73	71	83	102	130	186	250	300
회원 수	10,000	6,000	11,000	12,000	15,000	17,000	20,000	25,000	30,000

출처: “Zur Entwicklung der Deutschen Friedensgesellschaft” *Die Friedens-Warte*, Nr. 8 (Aug. 1926), p. 257. 물론 이들 회원이 모두 회비를 낸 사람이 아니었던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회원 수는 이보다 훨씬 더 적을 수 있다.

Warte)은 전쟁 후 달라진 이 협회의 모습을 이렇게 전했다. 잡지에는 집필자 이름이 없지만, 이것을 전한 사람은 1911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이자 <독일평화협회>의 창립자 가운데 한 명이었던 알프레트 헤르만 프리트(Alfred Hermann Fried)로 알려져 있다(Riesenberger 1985, 152).

그것[평화대회—필자주]은 과거와 달라 보였다. 과거에는 독일 평화주의가 내세를 조직이라고 해보았자 독일평화협회만이 있었고 그들의 총회에서도 남성(더러 여성도 있었지만) 대여섯 명 정도가 단상에 앉아 있었다.……대회도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대립이나 반대라고 할 만한 것이 없었다. 지도부나 상임위원회 대표가 제안하면 그저 좋다고 박수를 칠뿐이었다.……이제는……수동적 무관심의 분위기가 더는 지배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어떤 타협도 거부하는 급진적인 경향이 전반적으로 우세하다. 얼마나 지당하고 얼마나 기쁜 일인가!(Fried 1920, 218)

이러한 활기찬 모습에 강한 인상을 받음과 더불어, 그는 우려와 경고도 잊지 않았다. 그는 “점점 더 혐오스러워 가는 성향의 급진화”를 우려하면서 “폭음 같이 큰 목소리는 쓸데없는 것”이라며 경고했다. 이 회고는 전쟁을 경험한 후의 평화운동에 대한 거는 큰 기대감과 함께 그에 따른 후유증에 불안감을 드러냈다.

평화운동의 분열이라는 불안한 그림자는 제1차 세계대전의 종결을 확인하는 베르사유 조약에서 벌써 어른거렸다. 대다수 평화주의자는, 당시 독일의 지배적인 여론이 그렇듯, 베르사유 조약의 부당성에 반발하고 그것의 수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소수는 독일의 전쟁책임을 확신하면서 그것에 동의했다. 이러한 갈등뿐만 아니라 외부의 압력도 평화운동의 발전에 불안감을 조성했다. 베르사유 조약에 대한 불만이 이에 찬성하는 급진적 평화주의자에게 폭 발했다. 평화주의자였던 니콜라이(Georg F. Nicolai)와 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 교수의 수업에는 민족주의 학생이 난입하여 수업을 방해했고, 평화주의자 한스 파세(Hans Paasche)는 살해당했다.

불안감이 퍼지고 있었지만, 바이마르공화국 초기에 평화주의 세력은 일단 통합적인 발걸음을 보여주었다. 그 결실이 1922년에 창립된 <독일평화연합(Deutsche Friedenskartell)>이었다. 여기에는 정치적으로 서로 적대적이기까지 한 다양한 평화주의 세력이 모여들었다. 이 연합체는 적게는 수백 명에 불과했던 소규모 조직체까지 하나로 묶어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당

시 가맹단체의 회원 수를 모두 합하면 이 협회 회원은 10만 명에 이르렀다. 평화운동이 바이마르공화국 시절에도 지속적인 탄압에 노출되어 있었고, 또한 전후 직후에는 전쟁에 대한 혐오증과 더불어 전쟁을 미화하고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분위기가 팽배했음을 고려하면, 이러한 수적 증가는 괄목할 만한 성과였다.

이러한 성과에는 물론 제1차 세계대전의 끔찍한 경험이 반영되었다. 특히 종전 직후 아직 참혹한 전쟁에 대한 기억이 생생해서,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이 대거 반전운동에 참여했다. 명망가, 문필가, 예술가, 참전용사 등이 주도하여 ‘전쟁에 대한 전쟁’을 선포했고 ‘전쟁 반대운동’(Nie-wieder-Krieg-Bewegung)을 크게 일으켰다. 1923년 루르점령이 있기 전까지 이러한 반전운동은 뜨거웠고, 해마다 제1차 세계대전을 추념하는 8월 1일에 수많은 시위자가 참여하여 대중 집회를 열었다. 또한, 평화에 관한 인식도 심화하였다. 전쟁을 경험하면서 프로이센 군국주의의 철폐와 민주적 체제가 선행되지 않으면, 평화는 일종의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생겼다. 이로써 평화와 민주적 체제라는 두 개념이 결합했다. 이와 더불어 그 이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병역거부운동에 관한 논의도 등장했다. 이제 평화주의자들 가운데 일부는 병역복무 자체를 총력전과 대량학살의 원인으로 보고 이를 거부하기 시작했다.

그러는 가운데 평화운동의 주도 세력도 바뀌었다. 예전에는 부르주아 명망가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노동자가 대거 평화운동 조직에 참여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 평화운동을 지향하는 노동자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노동조합이 반전운동의 기치를 내걸었기 때문에, 부르주아 명망가가 모인 평화운동 조직보다는 노동조합을 택했다. 하지만 노동조합이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함께 반전운동을 포기했고, 부르주아지와 ‘성내평화(Burgfrieden)’를 통해 전쟁을 지지했다. 그래서 이들 평화주의 성향의 노동자는 전쟁 후 대거 평화협회의 문을 두드렸다(Holl 1988, 143). 당시 이 협회 지도자였던 폰 게틀라흐(Helmut von Gerlach)는 나중에 급진주의자 지도자가 될 프리츠 퀴스터(Fritz Küster)와 함께 1923년 초에 슈투트가르트(Stuttgart)와 울름(Ulm) 등 여러 남부 도시를 순회하면서 연설했는데 청중 대부분이 노동자였다. 그의 연설 모임은 나치의 방해로 여러 번 곤란을 겪었는데 이것을 막아서 모임을 성사시켰던 사람도 바로 노동자였다. “이 모임은 전반적으로 노동자가 보호대를 조직한 덕분에 진행되었다. 참석자 대부분 노동자층에서 왔으며, 부르주아

지 분자는 아주 적은 소수에 불과했다. 부분적으로 입장할 때 입장권이 아닌 노조원 증명서 등을 내보이기도 했다.”³⁾ 게를라흐는 이미 2월에 마그데부르크(Magdeburg)에서 연설했는데, 이때 모인 청중은 “약 4천 명이었고 그 가운데 대다수는 철도노동자였다.”⁴⁾ 1925년 1월 크레펠트(Krefeld)에서 열린 이 협회의 모임에서 독일독립사회민주당(USPD) 출신의 한 토론자는 “부르주아 평화주의와 프롤레타리아 평화주의 차이를 부각하여 강한 어조로 발언자를 비판했다.”⁵⁾

이렇듯 노동자 대중이 평화운동에 가세함으로써 평화운동의 노선, 조직 그리고 전략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새로 등장한 노동자층에 따르면, 그동안 평화운동이 엘리트의 운동이었고 스스로 대중조직으로 발전하기보다는 다른 대중조직이나 정당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략을 택했다. 또한, 스스로가 대중조직이 아니었기 때문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도 명망가 중심이었다. 예컨대 어떤 조직에 평화주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대중을 설득하거나 평화주의를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직의 지도부를 만나서 이야기하는 방식이었다. 이제 평화운동에 합류한 노동자층은 스스로가 대중조직으로 발전하고자 했으며, 직접행동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협회의 조직에 관한 생각부터 과거의 집행부와 달랐다. 과거에는 협회가 평화주의라는 목적을 위한 수단이었는데, 이제는 협회가 목적 그 자체가 되었다.

요컨대, 조직구성에서 부르주아지뿐만 아니라 노동자 등 여러 사회계층을 포함하게 되면서, <독일평화협회>는 이제 명망가 개인의 선의에 기댄 운동이 아니라 일부 지지층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사회 운동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Holl 1988, 144). 사실 전쟁 전까지 <독일평화협회>의 운동은 각 개인이 선한 동기에서 출발하여 사회를 계몽시키는 차원에서 머물렀지만, 바이마르공화국의 사회적 조건에서는 이러한 개인주의적 차원의 운동이 존립하기 어려웠다. 평화운동이 사회적 차원의 의미를 획득함에 따라서 이제 평화에 대한 개개인의 인식을 강조하는 것보다 평화에 대한 대중의 경험이 훨씬 더 중요해졌다.

3) Vorträge Helmut von Gerlachs in Württemberg, BArch R 1507/484.

4) Abschrift von Reichsbahndirektion an den Reichsverkehrsminister vom 21. Feb. 1923. BArch R 1507/484

5) Abschrift vom Polizeiverwaltung vom 30. Jan. 1925, betriff: Bericht über eine Versammlung der Deutschen Friedensgesellschaft. BArch R 1507/484.

투쟁 방식도 바뀌었다. 대중조직의 문화에 익숙해진 사람은 과거의 계몽적인 연설회를 그만두고 대신 행동주의적이고 감정적 경험을 할 수 있는 활동을 제시했다. 특히 대중과 감정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일체감을 느끼는 것을 겨냥했다. 곧 호소, 축제, 시위, 진군의 활동이야말로 내적으로는 열광적인 감성을 일으키고 밖으로는 감동적이고 ‘감탄을 불러일으키는’ 형태라고 이들은 주장했다. 가령 전쟁에서 모두 병역을 거부하는 사안이 등장했다면 과거에는 먼저 구체적인 토론부터 시작했다. 어떤 조건에서 왜 그래야 하는지를 놓고서 말이다. 그렇지만 이제 그것이 옳다고 자신의 감정이 느끼면, 그대로 행동으로 밀고 나가는 방식이었다. 이에 따라 조직 자체가 아예 ‘단결된 투쟁조직’으로 거듭나기를 이들은 기대했다.

그렇지만 대중의 열기가 무한정 계속될 수는 없었다. 무엇보다도 평화운동이 고양되고 정치적 기대감이 커졌지만, 구체적인 정치적 성과가 없었다. 제1차 세계대전 직후 평화주의자들은 정치권과 어떠한 관련을 맺을 것인가를 놓고 고민했다. 반전운동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었고 전쟁에 대한 혐오증이 정치권에도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짧은 시기이긴 했지만, 그들은 직접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1919년 협회의 회장이었던 크비테가 독일민주당의 발기인 대표로서 바이마르 제헌의회에 참여하고 바이에른 임시 의회에 부의장으로 활약하면서 이러한 희망이 부풀어 올랐다. 하지만 <독일평화협회>는 1919년 7월에 열린 베를린 대회에서 스스로 정당을 만드는 것을 포기했고, 평화주의자들은 정당 내에 개인적으로 소속되어 활동하기로 했다. 베르사유 조약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협회는 바이마르 초기부터 갈등을 겪기 시작했고, 결국 반전운동의 퇴조와 함께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Ⅲ. 새로운 평화주의의 대두: ‘급진적 평화주의’

이러한 조직상의 변화로 인해 평화주의의 단일한 이념도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이념적으로 보자면 평화운동은 그때까지 단일한 노선을 따르고 있었다. 그 유일한 이념이 바로 프리트가 주장한 소위 ‘조직적 평화주의’⁶⁾ (organisatorischer Pazifismus)이었다(Scheer, 125 이하).⁷⁾ 이들 지지자는 국

내에서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민주적인 질서를 기본으로 삼아, 당시의 국제법을 한층 더 발전시켜 집단적인 안전보장의 체제를 확립하고 국제기구가 효과적인 제재 수단으로 국가 간의 관계를 통제함으로써 평화를 유지하고자 했다. 새로운 국제조직을 통해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는 이러한 노선은 특히 제1차 세계대전 직후 국제연맹이 결성되면서 기대감이 크게 부풀어 올랐다(Grünwald 1992, 102; Holl 1988, 161). 물론 평화주의자는 새로 등장할 국제조직이 민주적인 틀에 바탕을 두기를 바라고 있었지만, 실제의 국제연맹은 그렇지 못했고 따라서 평화주의자 사이에서 적지 않은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런데도 평화주의자는 대체로 국제연합을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보았고 그러한 이상적인 조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 크비데는 1920년에 이렇게 말했다.

이 국제연맹은 이러한 공동체의 이해관계를 관리함으로써 활기찬 내용을 갖추어야 한다. 이것은 평화를 보장하는 제도에 그쳐서는, 말하자면 전쟁을 막는 기본적으로 소극적인 업무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이것은 인류애의 공통된 이해관계를 실현하는 긍정적인 업무를 맡음으로써 이러한 부정적인 업무를 쉽게 충족할 수 있을 것이다. 인류애의 공통된 이해관계를 토대로 삼으면, 비로소 평화보존의 업무도 항구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오늘날 그러한 것처럼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다면, 이러한 조직적인 평화보존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며 외형적인 것, 곧 복잡한 법조문만 남게 되는 것이다. 전쟁을 막는 토대는 우리가 인간적인 삶의 모든 영역을 포괄한 공동체 삶을 국제연맹 속에서 발전시켜야만 생겨날 것이다(Quidde 1922).

크비데를 중심으로 한 소위 조직적 평화주의는 국제법과 국가 간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평화를 유지하고자 했고 국제연맹을 강력하게 지지했다. 하지만 ‘정의를 통한 평화’를 원칙으로 삼은 이들은 방어 전쟁을 인정했고 또

- 6) 이 노선은 종종 ‘온건한 평화주의’, ‘전통적 평화주의’, ‘고전적인 평화주의’ 심지어 ‘정의 평화주의’(‘정의를 통한 평화’라는 의미에서)나 ‘초국가연맹 평화주의’(초국가연맹체를 통한 평화주의라는 의미에서)라고도 불렸다. 프리트 자신은 나중에 이것을 ‘과학적 평화주의’(wissenschaftlicher Pazifismus)라고 불렀다. 그는 어설픈 아마추어가 아닌 전문가가 내세운 평화주의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사용했다(Fried 1916a, 82 이하).
- 7) 크비데가 민주주의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그의 평화주의는 ‘민주적 평화주의’(demokratischer Pazifismus)라고 불릴 수 있다(Scheer, 136). 나중에 그것은 ‘조직적 평화주의’로 수렴되었다.

한 국제연맹이 전쟁을 법적인 제재로 가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옹호했다. 정치적으로 보면 이 노선을 지지하는 사람은 대개 자유주의적 좌파 계열의 사람으로서 대다수가 실제로 독일민주당에 소속되어 있었다. 이들 분파에는 사회민주당원이 전혀 없었고 중앙당과 우파자유주의자가 약간 포함되었을 뿐이다.

이러한 온건한 노선은 어떤 면에서 점진적이고 현실적인 측면이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현실적인 발전성을 체감하기 어려웠다. 전쟁을 직접 경험하면서 현실정치의 부조리에 신물이 난 젊은 노동자는 이러한 노선에 동의하기 어려웠다. 바이마르공화국 초기에 대중적인 반전운동이 거세게 일었을 때는, 바로 그 동력으로 실제 무엇인가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믿었다. 하지만 반전운동이 초반의 기세를 잃어버리자, 노동자 세력은 무엇인가 조급해졌다. 그러자 이들 사이에서 급진적인 분파로 여겨지는 소규모 집단이 점차 세력을 키웠다. 이들은 “정의를 통한 평화”보다는 “행동을 통한 평화”에, 개개인의 정치력보다는 대중행동에 호소했다. 이들은 전쟁 방지와 군비축소의 문제도 직접행동을 통해 근본적으로 투쟁해서만 해결될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르면 “평화주의가 단지 몇몇 사람의 이론적인 틀에 머무르는 한, 그리고 이들이 몇몇 전문적인 평화주의 조직에 둘러싸여 있는 한, 평화주의의 이론이 대중에게 본능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한, 세계평화는 사실상 하나의 꿈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Lehmann-Rußbüldt, 164).

이러한 대중의 염원을 실현하려는 급진적인 분파는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행동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투쟁적 평화주의자’로서 불렸다. 퀴스터를 중심으로 한 이들은 주로 독일의 서부에 근거한 지역 조직에서 출발했는데, 제1차 세계대전의 ‘참전세대’라는 특징을 갖고 있었다. 이들이 강조하는 바는 행동성, 강력한 의지, 그리고 비타협성으로, 전쟁의 경험을 직접 평화운동에 투사했다.

그렇다면 바이마르공화국 시기에 평화와 연관된 구체적인 문제에 이들은 어떻게 대응했는가? 이 시기에 평화주의자의 관심을 끌었던 문제는 우선 전쟁책임이었다. 1919년 베르사유 평화조약의 내용이 밝혀지자 이들이 직면한 문제는 이 조약을 수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급진적인 분파는 베르사유 조약 가운데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내용도 있지만, 이는 점차 신뢰를 구축하여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던 반면에, 조직적인 분파는 ‘강요된

평화'라는 입장을 버리지 않았고 그것의 수정을 요구했다. 급진주의자는 독일이 전쟁책임을 인정함으로써 프로이센-군국주의 전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었다. 따라서 이들은 베르사유 조약을 인정하고 국제연맹을 지지하지만, 징집거부와 총파업을 전쟁을 방지하는 우선적인 수단으로 인식했다.

징병제와 군대의 문제에 대해서도 온건파와 급진파의 입장은 분명하게 엇갈렸다. 이에 대해 협회의 다수는 징병제를 프로이센 군국주의의 토대로 인식했기 때문에 그에 반대했지만, '조직적인 평화주의자'만이 찬성했다. 상비군의 경우는 주로 급진적인 평화주의자에게서 반발을 샀다. 이들은 상비군이 외국의 침략에 대비하는 것보다는, 국내 정치에 이용되는, 무엇보다도 침략적인 집단의 온상이 되는 것을 막고자 했다. 그에 반해 조직적인 평화주의자는, 국가의 방위나 국제연맹의 수단으로 삼기 위해서, 군대를 완전히 포기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온건한 이들은 바이마르공화국의 연립정부와 비슷한 견해를 드러냈고 '군대를 공화주의적으로 만들자'라고 강령에 찬성했다. 그렇지만 '군대의 공화주의화'는 공화국 정부에 참여했던 연립정당이 엇갈린 행보를 보임에 따라 결국 별다른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양자의 차이에 관해서 당시의 언론 보도는 조직적 평화주의에 호의적이었다. <프랑크푸르트 짜이퉁>(Frankfurter Zeitung)에 따르면, "크비테를 따르는 집단은 정당과 정부에 영향을 주는 것 그리고 외국의 평화협회들과 신뢰 관계를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한다. 퀴스트의 집단은 원래 전혀 정치적 방향이 없고 오히려 직접행동의 지지자이다. 이들은 자기 요구의 절대성과 급진주의를 통해 대중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며 군사적인 충돌이 생길 때에 전쟁참여거부자가 되어서 혁명적인 평화주의를 이룩해 내고자 한다." 하지만 <청년독일인>(Die Jungdeutsche)은 이러한 분석이 피상적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여기에 방향성이나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세계관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르면, "크비테의 집단은 비록 항상 아주 선명하지는 않지만, 민족의 자기 방어권을 인정하고 있다. 반면 급진적인 평화주의, 곧 퀴스트 집단은 이 권리를 부정했다." 이 신문은 "온건한 평화주의가 더 현실적"이라면서 **"이에 반해 급진적인 평화주의는 완전히 뜬구름 잡는 이론"**(강조 원문)이라고 평했다.⁸⁾

이와 함께 소위 '혁명적 평화주의자'로 불리는 사람도 등장했다. 작가이자

8) <Was ist Pazifismus?>, Die Jungdeutsche vom 15. Feb. 1929. BArch R1507/1105.

활동가였던 쿠르트 힐러를 중심으로 1926년에 결성된 <혁명적 평화주의자 그룹>(Gruppe Revolutionärer Pazifisten)이 바로 그들이었다(Wurgaft 1992, 78 이하). 이들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생명을 신성시하는 사상에서 출발했다. 그러한 명분에서 이들은 그 어떠한 전쟁에도, 그것이 설사 한 국가의 방어 전쟁이든 혹은 국제연맹의 수단으로서의 전쟁이든 간에, 단연코 반대하는 노선을 취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전쟁에 반대하는 모든 수단, 곧 병역거부와 총파업 등이 정당화되었고 국제법 조직과 같은 것은 전쟁에 반대하는 수단으로 불충분한 것으로 여겨졌다. 이념적으로 이들은 자본주의에 반대하거나 혹은 사회주의에 경도되었다. 베르사유 조약에 대해서도 그것이 제국주의적 요구라고 주장하며 오히려 소련과 협력해야 함을 이들은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우리 젊은이들은 근대적 전쟁의 가장 강력한 뿌리의 하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이며 따라서 이 체제의 전복이 영구적인 인류평화를 곧바로 가져오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을 실현할 것이라는 점을 믿는다. …… 우리가 (비록 아직 사회주의자가 아니라고 해도) 평화주의에서 출발한 사회주의자이다. 우리는 완성된 세계사회주의가 세계평화주의의 완성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여긴다”(Hiller 1923, 14).

이들이 등장하게 된 계기는 병역거부 운동이었다. 이것은 독일에서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까지는 찾아볼 수 없었던, 다시 말해 전쟁을 경험한 이후 나타난 새로운 반전수단이었다. 이에 반해 영국과 북유럽 지역에서 이 운동이 더 일찍 활발하게 전개되었다(Riesenberger 1985, 144).⁹⁾ 아마 영국군의 포로가 되었던 독일군이 이것을 독일에 소개한 것으로 보인다(Grünwald 1992, 92). 또한, 아마도 기존의 조직적 평화주의 노선에 대한 기대가 깨어지고 제1차 세계대전의 경험으로 징병제가 대량학살의 가능하게 했다는 주장이 등장하면서 평화운동에서 병역거부 운동의 중요성이 갑자기 부각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온건한 노선도 전쟁 전의 입장과는 달리 개별적인 징집거부는 수용하게 되면서 상당한 진척을 이루는 듯이 보였다. 그렇지만 이들은 징집거부가 개개인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면서도 그것을 전쟁을 막는 수단으로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9) 영국 정부는 1916년 2월 징병법에서 양심에 따라 징집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했고, 1917년 12월에는 덴마크가 대체복무를 인정했으며, 스웨덴과 노르웨이도 이를 따랐다.

이에 반해 급진적인 분파는 징집거부가 모든 전쟁을 막는 기본적인 수단임을 강조하고 징집거부와 총파업을 연계하여 강력한 반전수단으로 삼았다. 이들은 특히 사회민주당과 사회민주당의 외곽조직인 <제국국기단 흑-적-금>(Reichsbanner Schwarz-Rot-Gold)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징집거부 선언에 대한 서명운동을 전개했으며, 1927년 어떤 지역에서는 13만 명이 선언에 서명하기도 했다. 이렇게 평화운동 내에서 당시 낯선 새로운 투쟁 요소가 첨가되어 공개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은 평화운동의 발전으로 여겨졌지만, 이에 관한 논의는 공화주의 정당과 조직에서 평화주의 세력과 군대를 지지하는 세력 사이의 갈등을 증폭시켰고, 결국 평화운동이 정치권으로부터 멀어지는 계기를 제공했다.

정부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1925년 8월 29일과 30일에 열린 <독일평화협회>의 연례총회에서 급진파는 “평화주의 좌파 세력인 <독일인권연맹>(Deutsche Liga für Menschenrechte)의 도움을 얻어 크비테에게서 폰 게를라흐를 거쳐 쉬킹(Schücking)로 이어진 노선에 등을 돌리고 중앙상임위원회의 다수를 차지하고자 시도했고, 실제로 의미심장한 성공을 거두었다.”¹⁰⁾ 비록 ‘온건파’인 크비테가 여전히 제1위원장의 자리를 지켰지만, 제2위원장과 제3위원장이 모두 좌파에 의해 채워졌으며, 부위원장 자리도 좌파가 차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바이마르 정부도 이미 1927년 3월 ‘독일 평화주의에서 급진화 경향’을 확인했다. “지난 몇 달 동안 평화운동에서 급진화 경향이 점점 더 두드러지고” 있다며, 그것이 “우선 이들이 관여한 정치적 문제에 관한 변화된 입장”에서, “다른 한편으로 인물과 조직 방식의 전환”에서 드러난다고 보았다.

이러한 분열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평화운동 내에서 상대적으로 의견 차이가 크지 않았던 사안도 있었다. 주로 국제적인 문제가 그러했다. 예컨대, 평화운동 내의 각 분파는 모두 독일이 국제연맹에 가입하는 것이나 폴란드 및 프랑스와 우호적인 관계를 갖는 것—폴란드의 국경선에 대해서는 다수 반발했지만 프랑스와의 국경선은 인정했다—에 찬성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이들 사이의 미묘한 차이점도 존재했는데, 그것은 앞서 말한 대로, 국제연맹이 전쟁 억제를 위해서 전쟁을 벌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견해가 달랐다.

10) BAArch R 1507/484 (211쪽) (추정하건대 여론감시국Überwachung der öffentlichen Ordnung 뉘른베르크 지부가 1925년 11월 11일에 작성한 서류로 보인다. 서류 일부만 게재되어 출처 불분명함)

국내적인 문제 가운데 여러 분파가 그나마 비교적 공감대를 형성했던 것은 군비축소였다. 베르사유 조약으로 독일에 군비축소의 의무가 생겼는데, 이에 대해 모든 분파가 대체로 환영했다. 베르사유 조약에 반대하는 평화주의자도 독일의 군비축소에는 찬성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들은 더 나아가 물리적인 측면의 군비축소, 곧 무기의 감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측면의 군비축소, 곧 폭력을 사용하려는 의식까지 축소를 것을 제안했다. 이는 기본적으로 독일의 군국주의적 문화의 토대를 약화해야 한다는 공감대에서 기인했다.

IV. 평화주의의 정치적 소외와 내적 분열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평화주의에 관심을 쏟고 있었던 정당은 민주당과 사회민주당 정도였다. 공화주의적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던 가톨릭중앙당에도 평화주의자들이 존재하긴 했지만 하나의 강령으로 발전시킬 정도로 힘이 있던 세력은 아니었다. 특히 사회민주당은 정치의 수단에서 전쟁을 배제하는 것, 프랑스 등 이웃 나라와 호의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 군축정책, 국제연맹, 공화국에 대한 지지에서 평화주의자와 공통된 이해관계를 드러냈다. 당시 저명한 평화주의자, 곧 크비테, 쉬킹, 폰 게를라흐, 폰 쇠나이히(von Schoenaich), 해리 그라프 케슬러(Harry Graf Kessler) 등이 모두 기존 정당에 가입해 있었다. 독일민주당과 사민당 내 지도부에 포진한 이들 <독일평화협회>의 회원 덕분에 복잡한 바이마르 정당 사이에서 평화정책을 어느 정도 조율할 수 있었다(Riesenberger, 220). 이들은 대체로 공화국의 수호자이었는데, 예컨대 <독일평화협회>가 1924년 봄 선거에서 내건 구호도 ‘전쟁의회냐 혹은 평화의회냐’였다.

하지만 1920년대 중반부터 점차 군사적이고 군비에 관련된 문제에 참여한 대립을 보이면서 양쪽은 갈등을 일으키게 되었고, 이후 독일 민족주의가 점차 공격적으로 되면서, 갈등을 넘어 서로 대립했다. 특히 급진적이고 투쟁적인 평화주의자가 병역거부에 관한 선전 활동을 강화하자 사회민주당 내에서 군대를 인정하는 세력과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독일민주당도 점차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화되면서 당내에서 평화주의자의 입지가 점차 약화하였다. 이렇게 평화주의 세력이 기존 정당에 미친 영향력은 이후에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

지만, 1920년대 중반부터 기존의 정당에서 점차 소외되기 시작했다.

비타협적인 노선으로 기우는 경향은 기존 정당에서도 드러났다. 1924년 비민주적인 군국주의 단체가 영향력을 행사하자, 사회민주당에서도 그들에 대항하여 공화국을 수호하고자 <제국국기단 흑-적-금>을 결성했다. 평화협회와 사회민주당과의 관계처럼 초기에는 이들 두 단체는 서로 협력하는 관계였다.¹¹⁾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국국기단>이 사실상 방위대의 역할을 자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평화협회와 갈등을 일으켰고, 날로 강력해지는 <제국국기단>의 군국주의적 성향을 급진적인 평화주의자가 직접 거론하고 비난하면서부터 갈등이 더욱 고조되었다.

특히 1925년 가을에 작가 투홀스키(K. Tucholsky)가 필명으로 급진적인 평화주의자의 기관지였던 『다른 독일(Das Anderer Deutschland)』에 ‘우리가 옳게 행동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하면서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¹²⁾ 이후 공화국 수호를 위한 외곽조직인 <제국국기단>의 군사적인 업무에 대해 열린 논쟁이 벌어졌다. 물론 평화주의자도 <제국국기단>이 우익 군사조직의 위협으로부터 공화국과 자신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어느 정도 무장을 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국국기단>의 청년이 군국주의와 민족주의에 감염되거나 혹은 그 결과 군대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평화주의자 대부분의—내부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입장이었다. 하지만 <제국국기단>은 군대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었고 사실상 그러한 유사 군대조직의 일원으로 발전하기를 오히려 희망하고 있었다. 결국, 이 조직은 원래 공화국의 수호조직으로 출발했지만 이제 점차 반공화주의적이고 반민주적인 세력의 준군사적인 조직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제국국기단> 내에서 평화주의자와 비평화주의자 사이의 갈등은 더욱 첨예화되었다. 급기야 바이마르공화국 말기에 <제국국기단>은 평화주의자를 자신의 조직 내에서 거의 추방했다.

다른 정당도 비슷한 행보를 취했다. 1930년 독일민주당이 <독일청년십자

11) 예컨대 1926년 4월 27일에 열린 한 지역 모임(연사는 헬무트 폰 게를라흐였다)에 “약 500명이 참석했는데 그 가운데 약 150명은 <제국국기단> 소속원으로서 이들은 이 모임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BArch R 1507/484 (182쪽 서류 일부만 게재되어 출처가 불분명함)

12) “전쟁에서 죽어간 사람을 우리러볼 것이 아니라 아주 깊은 안타까움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는 더러운 일을 위해 죽었기 때문이다.” (Donat/Wieland, 29).

단>과 통합하여 독일국가당을 만들자, 평화주의자는 완전히 독일민주당을 떠났다. 평화주의자는 독일공산당과도 결별했다. 애초부터 세계관이나 정치전략의 측면에서 공산당의 노선은 평화주의와 관계가 멀었다. 이미 1924년 독일공산당은 국제연맹을 ‘영국 제국주의의 권력 도구’로 규정했으며, 평화주의를 환상으로 평가절하했다. 결국, 독일민주당, 사회민주당, 중앙당은 모두가 평화주의자들의 요구를 강령으로 만드는 데 실패했고 이제는 아예 등을 돌렸다.

이렇게 기존 정치 세력에서 점차 소외되었던 평화운동은 이후 내부적으로도 분열함으로써 반대 세력의 공세 앞에서 무기력함을 드러냈다. 잦은 노선 갈등을 벌이던 <독일평화협회>는 1929년 결국 내부적으로 분열했다. 1920년대 중반기에 퀴스터를 비롯한 급진주의자가 이미 이 협회의 지도부에 들어가면서 협회는 점차 이들에 의해 장악되었다. 그것의 절정은 1929년 2월에 열린 베를린의 비상총회였다. 급진파는 결국 온건한 ‘조직적인 평화주의자’를 지도부에서 완전히 몰려나게 하고 협회의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이에 더해 외부의 압력도 더욱 강화되었다. 소위 급진파가 협회의 지도부를 장악한 이후 정부와 갈등은 더욱 고조되었다. 1928년에 이미 제국국방부는 퀴스터 등을 국가전복 혐의로 고소하고 평화주의자를 억압할 특별법을 준비했다. 정부의 압력이 강화되자 1930년 3월 <독일평화협회>의 기관지는 정부의 전쟁 정책에 반대하면서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전쟁이 일어날 경우, 우리는 모든 수단을 다해서 이러한 법률에 반대하고 군인들이 주어진 명령에 불복종하며, 군대에서 이탈할 것을 촉구하며 이러한 이탈이 쉽게 되도록 할 것이다.” 그러자 뷔르템베르크주 정부는 이 잡지의 폐간과 협회의 해체와 금지, 그리고 이러한 조치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 제안하겠다고 밝혔다.¹³⁾ 또한 <독일평화협회>에서 ‘빵 대신 순양함(Panzerkreuer statt Brot)’이라는 유인물을 발간하여 국방부의 예산안을 비판하자,¹⁴⁾ 국방장관 그뢰너(Groener)는 그러한 평화주의적 선전을 근절하기 위한 비상법안을 요구했다. 프로이센 사민당 출신 내무장관 제베링(Severing)은 1931년 초에 평화주의

13) <Kleine Anfrage Nr. 298> vom 14. November 1931. Landesarchiv Baden-Württemberg Hauptarchiv Stuttgart, E 130 b Bü 3514, Qu. 1837 (Friedengesellschaft, Deutsche Liga für Menschenrechte, Internationale Frauenliga für Frieden und Freiheit)

14) <https://www.archivportal-d.de/item/7HP4M5AJMKY2KQ5JSHKWRJW4P3ETI7YU> (2022년 10월 22일 최종접속)

선전을 실제로 금지했다.

평화운동은 내부적으로도 더욱 약해졌다. 급진주의자가 지도부를 장악한 이후 크비데를 비롯한 많은 온건한 평화주의자가 협회를 탈퇴하여 회원 수가 급격하게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따로 독자적인 조직을 구성하려는 탈퇴한 평화주의자의 시도도 전혀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공화국을 지지했던 온건한 평화주의자가 정치무대에서 사라지면서 공화국 자체도 이제는 흔들리게 되었다. 이렇듯 <독일평화협회>는 결국 크게 약화한 채 1932/33에 있었던 반파시즘 투쟁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

V. 맺음말

<독일평화협회>는 창립 초기부터 평화에 대한 감성적인 인식변화나 합리적인 초국가적 조직이나 국제법의 발전 혹은 급진적인 전쟁 거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평화 보존을 추구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 가운데 그 어느 것도 실질적인 영구적인 평화를 가져올 수 없었다. 특히 제1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탄생한 바이마르공화국 시기에 일시적으로 평화운동이 고양되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였지만, 구체적인 성과를 이루지 못한 채 오히려 파시즘에 정치적 주도권을 내주고 결국은 제2차 세계대전을 맞이했다. 이렇듯 당시의 평화주의는 “군사, 행정, 경제, 법률에서 보수적인 기본구조가 유지된 사회의 한구석에 자리 잡은 국외자로서 존재했다. 그러한 사회를 바꾸거나 극복하는 것은 …… 힘에 부치는 것이어서 결국 평화주의는 빌헬름 시기에 이미 획득했던 그러한 주변적인 역할에 머물렀다.”(Wette 1981, 12)

이렇듯 독일 평화주의, 특히 가장 세력이 컸던 <독일평화협회>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정치적 환경에서도 결국 세력화에 실패했던 것은 무엇보다도 대중적 평화주의의 등장에 따른 내부 분열 때문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을 겪고 난 이후 새로 등장한 새로운 급진주의적인 행동적인 문화는 대중에게 커다란 호소력을 발휘했다. 무엇보다도 전쟁의 참담한 결과를 목격한 대중은 이들 급진주의적 경향을 지지했고, 그 결과 이들은 단숨에 평화운동 내에서 지지 세력을 확보했다. 하지만 이들을 지지했던 대중은 1920년대 중반 정치

적 경제적 혼란을 겪으면서 이들에게서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대중의 지지가 줄어들자, 이들은 대중에 호소력을 높이기 위해 오히려 더욱 선명한 노선을 선택했다. 이로써 내부 분열은 점차 가시화되었고 정부는 이들을 분열시키는 공작에 나섰다. 결국, 급진적인 세력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평화운동은 자체 내의 분열을 낳고 공화주의 정당으로부터 외면당하는 딜레마에 놓였다.

이러한 분열과 고립으로 평화주의는 나치즘의 등장에 무기력하게 대응했다. ‘평화주의자 사이의 전쟁’은 그 과정에서 나치와 미래에 등장할 전쟁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긴 했지만, 실질적인 정치적 영향력은 거의 없었다. 또한, 이러한 무력감으로 인해 평화운동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어찌면 더욱 강하게 타올랐을 활력의 씨앗을 스스로 미리 제거한 셈이 되었다.

송충기는 공주대학교 사학과 교수다. 독일현대사를 전공하고 제1차 세계대전과 나치즘, 과거사정리에 대한 글을 다수 썼다. 현재는 동물사를 연구하고 있다.

참고문헌

- Bundesarchiv Koblenz (BArch).
R 43-1/512-514, R 1501/20252, R 58/9815, R 1507/1105, R 1507/484, R 507/1105.
N 1212 (Nachlass Ludwig Quidde).
Fried, Alfred Hermann. 1916a. *Vom Weltkrieg zum Weltfrieden zwanzig Kriegsaufsätze*. Zürich.
Fried, Alfred Hermann. 1916b. *Forderung des Pazifismus*. Zürich.
Fried, Alfred Hermann. 1920. “Eindrücke vom IX. deutschen Pazifistenkongress,” *Die Friedens-Warte*, Vol. 22, no. 7/8 (Okt.-Nov. 1920), pp. 218-220.
Hiller, Kurt. 1923. “Jungpazifismus,” *Die Friedens-Warte*, Vol. 23, no. 1/2, pp. 11-14.
Quidde, Ludwig. 1922. *Völkerbund und Friedensbewegung*, Leipzig, 4^e.
Quidde, Ludwig. 1926. “Die Mitgliederzahl der europäischen Friedensgesellschaften,” *Die Friedens-Warte*, Vol. 26, no. 7, pp. 216-217.
Schücking, Walther. 1917. *Der Dauerfriede*, Leipzig.
- Donat, Helmut/Lothar Wieland eds.. 1980. *Das Andere Deutschland. Unabhängige Zeitung für entschiedene Republikanische Politik. Eine Auswahl (1925-1933)*. Regensburg.
Goldstein, Brigitte M.. 1984. *Ludwig Quidde and the Struggle for Democratic Pacifism in Germany 1914—1930*. Diss. New York University.
Grünewald, Guido. 1996. “Kriegsdienstverweigerung in der Weimarer Republik.” in Adreas Gestrich/Gottfried Niedhart/Bernd Ulrich eds.. *Gewaltfreiheit. Pazifistische Konzepte im 19. und 20. Jahrhundert*. Münster.
Grünewald, Guido/Dieter Riesenberger. 1992. “Die Friedensbewegung nach dem Weltkrieg.” in Gottfried Niedhart und Dieter Riesenberger, *Lernen aus dem Krieg? Deutsche Nachkriegszeiten 1918/1945*, München.
Holl, Karl. 1978. “Artikel ‘Pazifismus’”. *Geschichtliche Grundbegriffe*,

- Historisches Lexikon zur politisch-sozialen Sprache in Deutschland.* eds. by O. Brunner, W. Conze and R. Koselleck Bd. 4. Stuttgart.
- Holl, Karl. 1988. *Pazifismus in Deutschland*. Frankfurt: Suhrkamp.
- Holl, Karl. 2007. *Ludwig Quidde (1858-1941) : Eine Biografie*. Droste Verlag.
- Jung, Otmar. 1986. "Spaltung und Rekonstruktion des organisierten Pazifismus in der Spätzeit der Weimarer Republik." *Vierteljahrshefte für Zeitgeschichte*, Vol. 34, no. 2.
- Lehmann-Rußbüldt. 1922. "Praktischer Massenpazifismus," *Die Friedens-Warte*, Vol. 22, no. 5, pp. 164-167.
- Lütgemeier-Davin, Reinhold. 1982. *Pazifismus zwischen Kooperation und Konfrontation, Das Deutsche Friedenskartell in der Weimarer Republik*, Köln.
- Riesenberger, Dieter. 1985. *Geschichte der Friedensbewegung in Deutschland. Von den Anfängen bis 1933*. Göttingen.
- Scheer, Friedrich Karl. 1974. *Die Deutsche Friedensgesellschaft (1892-1933). Organisation-Ideologie-politische Ziele. Ein Beitrag zur Geschichte des Pazifismus in Deutschland*, Phil. Diss. Bochum.
- Schönemann-Behrens, Petra. 2004. "*Organisiert die Welt*" *Leben und Werk des Friedensnobelpreisträgers Alfred Hermann Fried (1864-1921)*. Dissertation der Uni. Bremen.
- Wette, Wolfram. 1981. "Einleitung: Probleme des Pazifismus in der Zwischenkriegszeit", in K. Holl and W. Wette eds., *Pazifismus in der Weimarer Republik*. Paderborn.
- Wurgaft, Lewis D.. 1977. *The Activists : Kurt Hiller and the politics of action on the German Left, 1914-1933*. Philadelphia.
- 빌헬름 안센. 2010. 『평화』(코젤렉의 개념사 사건 5). 푸른역사.

Abstract

Peace Movement during the Weimar Republic: From ‘organisational pacifism’ to ‘radical pacifism’

Song, Chungki*

This article aims to find out the factors why the peace movement during the Weimar Republic failed to play a proper role against the emergence of fascism by analyzing the activities of the German Peace Society, the largest organization at the time. After World War I, the anti-war protests spread greatly and the number of members of the Society also increased significantly. Especially the Society, which had been led by a few prominent figures before the war, was now transformed into a mass organization, in which a lot of workers were recruited. Based on these new organizational changes, the “radical pacifism” has emerged. However, moderate “organizational pacifism” and “radical pacifism” clashed over many political hot issues like the Treaty of Versailles, Prussian Militarism, and Refusal of Conscription and eventually split at the end of the republic. This fragmented German Peace Society became more politically isolated and eventually failed to resist the rise of fascism.

Key Words: German Peace Society, peace movement, pacifism, Weimar Republic, ‘organisational pacifism’ ‘radical pacifism’

논문투고일: 2023. 04. 30.

논문심사일: 2023. 05. 02.

게재확정일: 2023. 05. 09.

* Professor of Department of History, Kongju National University, ms2991@kongju.ac.kr